

『몽골비사』에서의 “也孫 也速惕” 해석*

안 현 재**

【 차례 】

- I. 머리말
- II. “也孫 也速惕”가 언급된 맥락 및 선행연구의 해석
- III. 어법, 사료, 민속에 비추어 본 “也孫 也速惕”
- IV. 餘論

국문초록

본 논문은 『몽골비사』 제267절에 나온 “也孫 也速惕”(yisün yisüt)라는 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제안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수는 서하가 칭기스칸에게 멸망 당했을 때 그 군주 일로코 보르칸이 바쳤던 공물의 수다. 『몽골비사』의 각종 역주본에서, 이 수는 “아홉 개씩” 혹은 “九九”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주본은 그렇게 번역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那珂通世는 거란, 몽골인이 선물을 아홉 개로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也孫 也速惕”가 “아홉 개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어법 측면에서 보면 “아홉 개씩”은 ‘yisüt’가 아닌 ‘yisüged’여야 한다. 배분 수사는 기본 수사에 ~γad/ged를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9×9=81’로 해석하는 편이 더 합당하다고 보았다. 몽골 문화에서 숫자 9는 “많다”는 의미가 있고, 9를 9번 거듭하여 수량, 시공간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용례는 샤머니즘 의례, 사료, 법전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용례들을 소개함으로써, “也孫 也速惕”가 ‘9×9=81’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몽골비사』, 也孫 也速惕, 숫자 9, 숫자 상징 의미, 칭기스칸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安賢宰, 2024, 「《元朝秘史》의 隱喻及其 曆史學 闡釋」,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의 제2장 제4절 중 ‘yisün yisüt’ 부분 및 이를 바탕으로 2024년 7월 한국알타이학회 2024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몽골비사』에서의 “也孫 也速惕” 해석: 양분된 해석을 해소하기 위하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본 논문은, 『몽골비사』(이하 『비사』) 제267절에 나온 “也孫 也速揚”(yisün yisüt. “九九¹⁾)라는 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제안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비사』는 몽골인의 조상 신화, 칭기스칸의 생애 및 건국 과정을 담은 가장 오래된 사료다.²⁾ 그 원문은 위구르체 몽골문으로 작성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明 초에 그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몽골어 교재의 사본 뿐이다.³⁾ 그래서 그 지면에 펼쳐진 유형의 모양새는, 『비사』가 담고 있는 서사시적 내용 전개와 풍부한 문학적 표현들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언어교재의 형식을 취한다. 明 초 당시의 북방 한어 음가를 빌려 몽골어를 음사한 正文이 있고, 정문은 어느 정도의 분량 혹은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그 각각을 節이라 하며, 총 282개 절이 있다. 정문의 각 단어와 문법요소들 옆에는 그 뜻을 적은 傍譯이 있고, 매 절이 끝나는 곳에 해당 절의 전체 내용을 번역한 總譯이 있다.

즉 “也孫 也速揚”은 정문으로, 『비사』가 작성될 당시의 몽골어에서 아홉 아홉을 뜻하는 yisün yisüt를 한자로 음사한 것이다. 也速揚의 “揚”이 아래첨자로 표시된 것은 “yisüt”의 종성 ‘-t/-d’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정문 옆에는 “九九”라는 방역이 달렸고, 총역에서도 九九라고 번역됐다.

보다시피 방역도 총역도 모두 명백하게 “九九”라고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也孫 也速揚에 대한 『비사』의 각종 번역본의 해석은 양분되어 있다. “아홉씩” 혹은 “九九”다. 본문은 “아홉씩”보다는 “九九”, 즉 “구구 팔십일”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 그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몽골인들의 관념과 관습, 생활상과 제도를 기록한 자료들 속에서

1) “也孫 也速揚”은 yesün yesüd로 전사되기도 하며, 『비사』에 쓰인 ye가 대부분 ye음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yesün yesüd가 적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전사는 편의상 栗林均의 전사 방식을 따른다(栗林均·确精扎布編, 200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叢書第4號,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 유원수 역주, 2004, 『몽골비사』, 사계절, 7쪽.

3) 烏蘭校勘, 2012, 『元朝秘史』, 中華書局, 2-4쪽.

숫자 9의 용법도 살펴볼 것이다. 숫자는 수량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징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⁴⁾ 이는 몽골 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그것은 몽골인들의 특수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천신이나 지도자에게 바치는 공물의 수가 9로 맞춰지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이는 『비사』의 서술 방식에도 그대로 녹아들었다. 『비사』에 등장하는 숫자는 특수한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숫자 7은 칭기스칸에게 대적했던 인물이나 부정적 상황을 수식한다. 즉, 몽골 민속과 『비사』의 기록에는 숫자의 상징성이 간접하고 있다.⁶⁾ 『비사』 기록 중의 “也孫 也速揚”가 어떤 수인지 파악할 때, 몽골 문화 속 숫자의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II. “也孫 也速揚”가 언급된 맥락 및 선행연구의 해석

也孫 也速揚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위해, 먼저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며 단서를 얻기로 한다. 也孫 也速揚는 서하의 군주 일로코 보르칸(Iluqu Burqan)이 칭기스칸에게 항복하면서 바쳤던 공물의 수량이다. 일로코 보르칸에게 멸망의 불행이 닥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칭기스칸은 일찍이 서하에 원정을 나섰었다. 서하의 군주 보르칸은 칭기스칸에게 귀부하였고, 칭기스칸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탕오드 사람들로부터 낙타를 징발하여 이루 다 몰고 갈 수 없도록 가져다

4) 고정석, 1988, 「Macbeth의 상징 연구 : 숫자 3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영어영문학』 34(1), 122-123쪽.

5) 色·杜拉瑪, 2001, 『蒙古象征學』(上冊).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장장식·전경옥, 2001, 「동몽골 보리야드 족의 샤머니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학연구소 편, 『몽골의 무속과 민속』, 월인, 167-214쪽.

6) 안현재, 2024, 「『몽골비사』 다시 읽기-일곱 콩코탄 기사의 재검토」, 『동양사학연구』 167.

주었다.”⁷⁾ 이후 칭기스칸이 사르타울(Sarta'ul, 호라즘)에 보냈던 사신이 오토라르에서 살해당하자, 그들에게 출정했다. 그리고 서하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병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⁸⁾ 칭기스칸은 西征에서 돌아온 뒤 서하로 복수의 발길을 옮겼다. 결국 서하는 철저히 파괴당했고, 끝내 그 군주 일로코 보르칸이 여러 가지 공물을 갖추어 직접 칭기스칸을 알현하게 되었다.⁹⁾ 그 공물의 수량이 也孫 也速揚였다. 그 공물들과 수가 어떻게 묘사됐는지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순서는 正文-傍譯-라틴문자 전사-각 단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순이다.¹⁰⁾

-
- 7) 『비사』에서는 칭기스칸이 금나라 정벌 후 돌아오며 내친김에 서하까지 정벌한 것으로 서술했지만, 사실은 금나라 정벌 이전에 이미 몇 차례 서하를 침공했었다. 나이만부 정벌 직후에 제1차 침공이 있었고(1205년), 1207년에 2차 침공, 1209 혹은 1211년 즈음 3차 침공이 있었다. 당시 몽골군은 『비사』에서 묘사된 것처럼 낙타를 포함한 여러 물자를 수없이 몰고 갔는데, 여기에는 낙타를 이용해 군수물자 운송을 쉽게 하려는 것과, 서하에서 금나라로의 물자 유입을 차단하여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끊으려고 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서하의 군주 보르칸은 몽골에서 불교국가 서하의 왕을 부르는 명칭으로, 물론 佛陀를 의미할 것이다. 몽골의 제1차 침공 당시 서하의 '보르칸'은 桓宗이었고, 2, 3차 침입 당시는 襄宗 이안전이었다. 『비사』의 이 부분에 나오는 보르칸은 양종을 가리킨다. 村上正二 譯注, 1976, 『モンゴル秘史(3)チンギス・カン物語』, 平凡社, 151-152쪽의 주석과 주석1을 참고.
- 8) 이때의 '보르칸'은 앞의 양종이 아니라, 神宗 이준욱이다. 村上正二 譯注, 1976, 위의 책, 201-202쪽의 주석1을 참고.
- 9)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유원수 역주, 2004, 앞의 책, 253-254, 258-259, 268-269, 279-283쪽을 참고. 서하가 완전히 몽골제국에 항복하여 흡수된 때의 '보르칸'은 李暉이다. 村上正二 譯注, 1976, 위의 책, 271쪽 주석 15를 참고.
- 10) 정문과 방역은 烏蘭校勘, 2012, 앞의 책, 377쪽을, 전사는 栗林均, 2009, 『『元朝秘史』モンゴル語漢字音譯・旁譯漢語對照語彙』,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566쪽을 인용함. 국문 번역은 유원수 역주, 2004, 앞의 책, 282쪽을 바탕으로 약간의 변경을 가함.

田迭 不_舌兒罕 阿兀_勒札_舌命 阿_勒壇 速_箴思
 那裏 人名 拜見時 金 佛每
 tende burqan a'uljarun altan sümes
 거기서 보르칸이 배알하며 금 佛들

帖_舌里兀連 阿_勒壇 蒙_昆 阿牙_中合撒巴 也孫 也速_楊 訥兀_楊
 爲頭 金 銀 器皿 九 九 男
 teri'ülen altan mönggün ayaqa saba yisün yisüt nü'üt
 필두로 금 은 기명 九九, 男

斡_乞_楊 也孫 也速_楊 阿_黑駟_思 鐵_箴額_楊 也孫 也速_楊
 女 九 九 駟馬每 駱駝每 九 九
 ökit yisün yisüt aqtas teme'et yisün yisüt
 女 九九, 거세마들, 낙타들 九九,

額_勒迭必耶_舌兒 也孫 也速_楊 只速列周 阿兀_勒札_中灰突_舌兒
 諸般教 九 九 色樣着 拜見的時
 eldeb-iyer yisün yisüt jisülejü a'uljaqui-tur
 갖가지를 九九로 갖춰 배알할 때

不_舌兒_中合泥 額_閤闐 不_帖兀那 阿兀_勒札兀_勒罷
 人名行 門 暗行 教拜見了
 Burqan-i e'üden büte'üy-e a'ulja'ulba.
 보르칸을 문 덮은 채 배알케 했다.

『비사』 제267절의 總譯 부분 중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時唐兀楊主不兒罕. 將着金佛並金銀器皿. 及男女馬駝等物. 皆以九九爲數來獻. 成吉思
 止令門外行禮.¹¹⁾

『비사』의 정문, 방역, 총역 및 여러 번역본을 종합하여 한국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기서 보르칸이 배알하며 금불을 필두로 금, 은, 기명을 九九, 男女를 九九, 거세마, 낙타를 九九, 갖가지를 九九로 갖춰 배알할 때 [칭기스칸이] 보르칸을 문을 닫은 채(혹은 문밖에서) 배알케 했다.”¹²⁾

칭기스칸이 서하의 군주 보르칸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시작점부터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보르칸이 첫 번째로 칭기스칸에게 귀부했을 때는 단지 낙타를 “이루 다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쳤다고 했다. 하지만 서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몽골군으로부터 징벌적 철퇴를 맞고서 귀부의 표시로 칭기스칸에게 여러 공물을 바치게 됐을 때는 그 수가 也孫 也速揚라고 구체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어쩌면 也孫 也速揚라는 수에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함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 심중한 상황에서 바쳐진 공물의 수 也孫 也速揚는 과연 몇 개를 나타내는 말이며, 왜 이 수량이어야 했을까.

서하의 멸망 과정, 그리고 망국의 군주 일로코 보르칸이 망국의 순간 행복의 표시로 선물을 바쳤던 정황을 보면, 그 선물의 양과 질은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也孫 也速揚는 그가 바칠 수 있는 공물 수량의 최대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수는 몽골인의 요구대로, 몽골인이 인식하는 숫자 상징 의미에 기초하여 정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也孫 也速揚의 9는 몽골 문화에서 최대수량을 상징하는 수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념에 따라 공물의 수량이 정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증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견해 및 몽골 문화에서의 9의 쓰임새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사』의 여러 역주본은 대체로 일로코 보르칸이 바쳤던 금불 등의 공물이 어떤 것인지 고증하기에 집중할 뿐, 의외로 也孫 也速揚라는 말 자체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중에 札奇斯欽은 也孫 也速揚를 九九라고 번역하고, 이에

11) 烏蘭校勘, 2012, 앞의 책, 378쪽.

12) 마지막 행의 büte'üy-e의 해석에 관해서는, 小澤重男, 1989, 『元朝秘史全釋續攷(下)』, 東京: 風間書房, 418-421쪽의 주석 3을 참고.

대해 짧은 주석 하나를 남겼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의 습속에서 9는 크고 길함을 나타내는 수로, 상, 별, 進貢 등 각 방면에서 9를 단위로 했는데, 一九, 三九 등으로 나가다가 九九를 가장 큰 수로 했다고 한다.¹³⁾

이는 札奇斯欽 개인만의 견해가 아니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몽골 문화에서 숫자 9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정치와 법에서도 중요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았다. 위구르와 거란의 경우 부족 조직이 9개 단위로, 칸위 수여 의례 때 양탄자 카펫 위에서 아홉 번의 일출을 연출했다고 한다. 몽골 왕공들이 칭 황제에게 구백 지공의 예를 행한 것 역시 9가 가진 길함, 크다는 함의를 통해서 존송을 드러낸 것이었다.¹⁴⁾

『비사』에서도 9의 함의와 쓰임새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비사』의 서사에서 테무진은 탄생 직후 9세로 건너뛰어 일생을 시작하며, 그의 영웅적 행적, 지위에 변화가 있을 때 그의 사적에는 9가 수식된다. 그가 메르키트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에서 하늘(태양)을 향해 아홉 번 절한 것, 1206년 몽골 고원을 통합하여 칸위에 올랐을 때 아홉 다리를 가진 툽(tuq, 纛)을 세운 것은 잘 알려져 있다.¹⁵⁾

하지만 숫자에는 결코 단일한 함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상황이나 문맥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¹⁶⁾ 숫자 9 역시 마찬가지다. 위에서 언급한 숫자 9는 주로 성스러운 상황, 인물의 사적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숫자 9가 수량 혹은 시공간의 길이와 범위의 최대치, 지극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몽골의 언어 습관에서 여러 재능과 기예를 가진 것을 “아홉 기예”, “아홉 힘”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언어”는 “아홉 혀(언어)”라고 하며,¹⁷⁾ 『비사』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비사』 245절을 보면,

13) 札奇斯欽譯註, 1979, 『蒙古秘史新譯並註釋』,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420쪽의 주석 5.

14) Moses, Larry., 1986, “Triplicated Triplets: The Number Nine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sian Folklore Studies* 45(2), pp.287-288.

15) Moses, Larry., 1986, *Ibid.*, pp.289-293.

16) 溫海清, 2021, 「再論數字7在蒙元時代的呈現及其象徵意義」, 『學術月刊』 53(2), 198쪽.

17) 色·杜拉瑪, 2001, 앞의 책, 166-186; 장장식·D. Ulziibat, 2011, 『『몽골비사』에 나타난 숫자의 상

칭기스칸 즉위 후 공신 가족의 일원 텡 텡게리의 세력이 커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다: “아홉 언어의 사람들이 텡 텡게리에게로 모여들었다.”¹⁸⁾ “아홉 언어의 사람들” 『비사』의 여러 역주본 및 선학들에 의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 혹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로 해석됐다.¹⁹⁾ 몽골국 건립 후의 논공행상에서, 칭기스칸이 주요 공신들에게 아홉 번의 면죄를 약속했던 것 역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면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²⁰⁾

9는 수량뿐 아니라 시공간의 최대치를 표현하기도 한다. 겨울의 한기를 어린이의 3·9 추위, 젊은이의 3·9추위, 노파의 3·9추위 등 3·3으로 나누어 9·9의 추위를 언급한다. 이는 추위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극한에 이르러 쇠퇴하는 단계를 보여준다고 한다.²¹⁾ 즉 3의 3배인 9가 다시 아홉 곱절된 수를 극한의 수라고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9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몽골 속담이나 서사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크게 기대한 곳에서 아흐레 밤을 굶기(ИХ санасан газар есөн шөнө хоосон хонох)”라는 속담이 있고,²²⁾ 몽골 영웅서사시 『한 하랑고이』에는 먼 거리가 “9달 걸리는 곳”으로, 오래 지났다는 것이 “앞선 말들이 간 지 아홉 달이 되었다”로 표현되었다.²³⁾

즉, 몽골의 숫자 상징에서 9가 수량 혹은 횟수, 시공간과 결부됐을 때 최대수

정성], 『비교민속학』 44, 113-116쪽.

18) 유원수 역주, 2004, 앞의 책, 243쪽.

19) 小澤重男, 1989, 앞의 책, 180쪽; 유원수, 2004, 앞의 책, 243쪽; Rachewiltz, I. d., 2004,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Leiden & Boston: Brill, pp.878-879; 阿爾達扎布, 2005, 『新譯集註《蒙古秘史》』, 內蒙古大學出版社, 451쪽.

20) 학자에 따라서 “아홉 번 면죄”의 “아홉”을 천상 내지 그것에서 유래한 칸의 의지와 관련짓는 경우도 있다(色·杜拉瑪, 2001, 앞의 책, 168-171쪽). 하지만 『비사』에서 칭기스칸이 자신의 행위와 사건의 결과가 천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천지가 힘을 더해 주사” 등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말을 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공신에게 아홉 번 면죄를 약속할 때는 이와 같은 말이 없었다. 따라서, 아홉 번 면죄의 9는 ‘누차’의 의미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21) 色·杜拉瑪, 2001, 위의 책, 179쪽; 선펠자빈 돌람, 이평래 옮김, 2007, 『몽골 신화의 형상』, 태학사, 99쪽.

22) 유원수, 2009,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165쪽.

23) 色·杜拉瑪, 2001, 위의 책, 183쪽; 이안나, 2016, 『몽골 영웅서사시의 통섭적 연구』, 민속원, 232, 251, 255쪽.

량, 최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하의 일로코 보르칸이 也孫 也速揚의 수로 공물을 바친 것은, 물론 테무진에 대해 존송을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에서의 최대수량을 바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也孫 也速揚에 대한 해석이다. 『비사』의 각종 번역본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린다. 한쪽은 “아홉씩”인데, 那珂通世, Onon Urgunge, 村上正二, 小澤重男, Igor de Rachewiltz, 유원수, Christopher P. Atwood 등이 이렇게 해석했다.²⁴⁾ 다른 한쪽은 “九九”로, 策·達木丁蘇隆, 道潤梯步, 札奇斯欽, Ш.Чоймаа의 해석이다.²⁵⁾

“아홉씩”으로 해석한 학자들 가운데, 那珂通世가 그 까닭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也孫 也速揚는 구구 팔십일이 아닌 ‘아홉씩’이라고 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첫째, 遼王 야율유가의 과부 姚里씨가 태조를 알현할 때 人馬 金幣 모두 아홉씩 하사받았다고 한다. 둘째, 몽골 원수 카진이 고려와 함께 고려의 변경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거란의 잔당들을 제압한 뒤, 고려의 조충, 김취려 두 장군에게 선물을 건네는데, 사람과 말을 각 아홉씩 전해주었다고 한다.²⁶⁾ 셋째, 崇德 3년 할하 三汗이 사신을 보내와 내조했는데 각각이 백마 여덟과 낙타 하나를 바쳤고, 이를 구백지공이라 하며 해마다 그러했다는 기록 등이었다. 말하자면 那珂通世는 몽골에서 공물, 선물이 아홉 개씩 맞춰져 오가던 것을 근거로 『비사』 속 也孫 也速揚를 “아홉씩”으로 해석한 것이다.

9에 다수, 크다는 함의가 있는 만큼, 那珂通世가 근거로 제시한 기록들 외에도 추가적인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몽골 황제와 고려왕 사이에 선물

24) 那珂通世 譯注, 1943, 『成吉思汗實錄』, 築摩書房, 500-501쪽; Onon, Urgunge, 2001,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The Life And Times Of Chinggis Khan*, Curzon, p.260; 村上正二 譯注, 1976, 앞의 책, 261쪽; 小澤重男, 1989, 앞의 책, 417쪽; Rachewiltz, 2004, op.cit., p.199; 유원수 역주, 2004, 앞의 책, 282쪽; Atwood, C.P.,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enguin Classics, 2023, §267.

25) 策·達木丁蘇隆 編譯, 謝再善 譯, 1956, 『蒙古秘史』, 中華書局, 263쪽; 道潤梯步, 1979, 『新譯簡註(蒙古秘史)』, 內蒙古人民出版社, 355쪽; 札奇斯欽, 1979, 앞의 책, 419쪽; 阿爾達紮布, 2005, 앞의 책, 493쪽; Ш.Чоймаа, etc., 2024,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тай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Анд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p.625).

26) 『高麗史』世家 卷103 列傳 卷16, 諸臣, 金就礪, (哈眞)“遣冲·就礪各九人, 駿馬各九匹, 其餘悉令自隨.”

이 오갈 때 그 개수는 9개로 맞춰졌다. 충렬왕은 1294년에 원나라에 있으면서, 공주와 함께 쿠케진妃의 궁전에 가서 백마 아홉 필을 바쳤다고 한다.²⁷⁾ 1262년에 고려 원종이 박륜 등을 몽골제국에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게 했는데, 박륜 등이 돌아올 때 쿠빌라이 카안은 원종에게 비단 9필을 보냈다.²⁸⁾

『집사』에는 우구테이와 몽케 카안의 즉위식에서 새로 선출된 카안을 향해 모두가 아홉 번 절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⁹⁾ 또한 카안에게 謝意를 표할 때도 9수로 맞추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구테이가 카안이 된 이후 차가타이와 함께 말 경주를 하다가 차가타이가 그 시합에서 이겨버리는 일이 있었다. 차가타이는 자신의 무례함을 후회한 나머지 우구테이에게 자신을 처벌해줄 것을 청하였다. 우구테이는 자신의 형인 차가타이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차가타이는 끝내 우구테이에게 말 아홉 필을 바치고 고두의 예를 행했다.³⁰⁾

위와 같은 기록들은 당시 몽골인들이 예물을 건넬 때나 재산형으로 가축을 배상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아홉 개를 기준으로 수를 맞추는 관습이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也孫 也速揚을 “아홉씩”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위에서 나열된 기록들 속에서 9수가 두 번 반복되어 기재된 경우가 없다. 표현 방식에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단지 예물이 아홉 개로 맞춰져 오가던 기록을 근거로 也孫 也速揚을 아홉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사료 기록 중에서도, 민속, 법제 등 여러 방면에서 *yisü* *yisü*(9·9), 九九처럼 9를 반복한 표현들이 보이며, 9의 9배수 즉 81개의 공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보인다. 그렇다면 也孫 也速揚을 아홉씩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구구 팔십일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우선, 어법 측면에서 봤을 때 也孫 也速揚가 “아홉씩”이 아닌 이유부터 설명하겠다.

27) 『高麗史』 世家 卷31, (甲午)“二十年 春正月 壬子朔 王在元. 王與公主, 詣闕關眞妃殿, 獻白馬九匹.”

28) 『高麗史』 世家 卷25, 元宗 3年. “秋七月 壬寅 林倫還自蒙古, 帝賜王錦九匹.”

29)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5, 『칸의 후예들』, 사계절, 51, 318쪽.

30) 김호동 역주, 2005, 앞의 책, 237쪽.

(*niji'el*)이 나온다.³³⁾ 이는 *nigen*(1)에 배분 수사 *~gad/ged*가 붙고, 끝의 *~d*가 *~l*로 교체된 형태다. 小澤重男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어에서 배분 수사 *~gad/ged*가 *~gal/gel*로 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 예로 “*bayacud*”(부자)의 *~d*가 *~l*로 교체되어 “*bayacuul*”이 되는 식이다. 즉 『비사』 19절에서의 *niji'el*은 *nijiged*고, 그 의미는 물론 “하나씩”이다.³⁴⁾ 그리고 그 방역 역시 “每一隻”이다.

즉 “~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배분 수사 *~rad/ged*가 붙거나 *~rad/ged*의 *~d*가 *~l*로 교체된 형태여야 한다. 만약 일로코 보르칸이 각종 공물을 아홉 개씩 바쳤다면 그 수는 *visüged*나 *visügel*이었어야 하고, 『비사』에서의 한자 음사는 也速額楊나 也速額勒 정도가 기대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也速楊(*visüt*)였기 때문에, 어법적 측면에서도 *visün visüt*는 ‘아홉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visün visüt*로 81을 표현한 다른 예시는 없을까? 비록 글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같지는 않더라도, 몽골의 언어 습관에는 분명 9를 반복함으로써 그 곱절인 81을 표현했던 것 같다. “*visü visü nayan nige*”(nine times nine is eighty one)라는 말이 있고,³⁵⁾ 이는 사료와 법전, 샤머니즘 의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 구체적인 용례를 아래에서 소개하겠다.

2. 사료 속의 근거

언어 표현 방식 외에도, 也孫 也速楊는 위의 예들과 차이가 있다. 우선, 상황이 다르다. 那珂通世가 인용한 기록은 대체로 일상적인 상황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서하의 군주 보르칸이 칭기스칸에게 각종 공물을 也孫 也速楊의 수로 바쳤던 상황은 서하가 몽골에게 항복하고 그 국가의 종말을 고하던 때였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물을 받은 주체가 누구지도 고려해야 한다. 那珂通世가 제시한 근

33) 烏蘭 校勘, 2012, 앞의 책, 6쪽.

34) 小澤重男, 1984, 앞의 책, 112-113쪽.

35) Lessing, F. D., 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434.

거 중 하나인 구백지공은 청조가 황제국으로서 몽골의 조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칭기스칸이 서하 군주 보르칸에게 也孫 也速揚의 수로 공물을 받았던 것과 상반된다. 예법은 패권국의 입맛에 따르게 되므로,³⁶⁾ 청조가 중심에 놓인 예제를 볼 것이 아니라, 몽골이 중심축에 있던 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전제할 것은 첫째, 시대는 몽원 시기에 초점을 맞출 것. 둘째, 몽골이 진상을 받는 경우일 것. 셋째, 몽원 시기가 아니거나 공물의 수량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몽골인들 사이에서 숫자 9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었는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몽원 시기에 그들과 주변국 간의 선물 왕래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高麗史』를 살펴보면 고려왕이 원 황제나 태후에게 선물할 때는 81개로 갖추어 보내는 기록들이 보인다. 충선왕이 진왕(晉王) 감말라(甘麻剌)의 딸 보다시리에게 장가들 때, 원 황제에게 백마 81필을 보냈다.³⁷⁾ 충혜왕도 원 황제에게 백마 81마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³⁸⁾ 원 성종이 즉위했을 때는, 충렬왕과 공주가 銀盃 81개, 銀鍾 18개, 紫羅 9필, 細苧 86필, 표범 가죽 18장, 수달피 81장을 바쳤다고 한다.³⁹⁾ 예물의 개수가 81, 18, 9와 같이 9의 배수로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법은 훗날 복원 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측에서 복원 황제에게 보낸 예물은 白金 7錠과 紵布 81필이었고, 황후에게는 白, 黃, 紅紵布 각 9필, 제2황후에

36) 예를 들어 紹興和議 이후 금의 사신을 맞는 송의 受書儀禮는 송의 황제가 기립해서 책을 직접 금의 사신에게 받는다는 전무한 치욕적인 의례였다. 송은 이러한 굴욕 외교를 시정하고자 수차례 금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의례는 양국의 외교가 단절되기 전까지 금의 뜻대로 계속 유지됐다. 후금의 경우, 처음에는 내용골 부족들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였지만 이후 후금이 강성해지자 그들 간의 의례 절차는 서열화되었다. 관련 내용은 김성규, 2013, 「金朝의 '禮制霸權主義'에 대하여」, 『中國史研究』 86, 163-168쪽; 이선애, 2018, 「후금 시기 의례의 정치-의례를 통해 본 對蒙관계」, 『史叢』 93을 참고.

37) 『高麗史』 世家 卷33;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3, 忠烈王 22年 11月. “王以白馬八十一匹, 獻于帝, 納幣, 遂尙晉王甘麻剌之女.”

38) 『高麗史』 世家 卷36 忠惠王 즉위년 4月 甲午. “王獻白馬八十一匹. 帝御興聖殿, 會諸王·駙馬, 置酒, 勅王以屬序坐.”

39) 『高麗史』 世家 卷31. “獻金盞·銀鍍葵花盞各一副, 金瓶·金鍍銀盃·壺·湯瓶·酒瓶各一事, 半鍍銀盃·胡瓶各一事, 銀盃八十一事, 銀鍾十八事, 紫羅九匹, 細苧八十六匹, 豹皮十八領, 水獺皮八十一領, 以充庭實.”

게는 백저포 9필, 황저포 5필, 홍저포 4필을 보냈다.⁴⁰⁾

이러한 기록을 보면 황제에게 올리는 81개의 예물 수량은 “ 많음 ”을 뜻하는 수인 9를 다시 아홉 곱절함으로써 “최대치”를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의 기록에서 보다시피, 紵布를 진상함에 있어서 황제에게는 81필, 황후에게는 백색, 황색, 홍색 紵布 각 9필, 2황후에게는 白紵 9필, 黃紵布5필+紅紵布4필=9필을 건넸다는 것이다. 9수 자체가 ‘큰’, ‘다수’를 상징하므로 황후에게 紵布를 9필로 맞춰진상함으로써 그에게 바친 공물의 수가 ‘많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지고무상의 황제에게 그 9수의 9배인 紵布 81필을 진상하여, 최대수량을 표시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은 9가 한 자리 수 중 가장 큰 수고, 9의 9배수인 81을 가장 큰 수, 완전한 수를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⁴¹⁾

몽골 문화와 접점이 있는 투르크인들 역시 “toquz toquz”(9·9)의 숫자로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⁴²⁾ 『집사·부족지』에서도 이러한 습속을 발견할 수 있다. 칭기스칸 시대 이전, 나이만족의 군주는 나르키시 타양(Närqish Táyàng)과 아니아트 카안(Aniát Qán) 이 두 명이었다. 동생 아니아트 카안이 제 형 나르키시 타양에게 “아홉에 아홉으로”(nuh bár nuh, 즉 nine times nine) 헌물을 갖고 와 조아렸다고 한다.⁴³⁾ 이러한 기록들은 9수를 기준으로 진상하는 등의 습속이 북방 민족 사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유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관습은 몽골제국을 방문한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도 소개되었다. 대카안에게 선물을 바칠 때 각각의 선물은 9의 9배를 해야 하며, 만약 어떤 지방에서 말을 상납하려고 하면 아홉 마리의 9배, 즉 81마리를 바쳐야 했다고 한다.⁴⁴⁾ 그러므로 고려 역시 몽골제국에 공물을 바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몽골제국의 관습에 맞춰서 ‘가장 큰 수’를 의미하는 구

40) 『高麗史』 卷133 列傳 卷46 禔王 3年 3月. “且獻禮物, 皇帝白金七錠, 紵布八十一匹, 皇后白黃紅紵布各九匹, 二皇后白紵布九匹, 黃紵布五四, 紅紵布四匹, 中書省太師闊闊帖木兒, 太保哈刺章, 大尉蠻子, 各白紵布八匹, 黑麻布七匹, 鞍子一面. 平章叅政臺大夫, 下至內官小臣, 皆遺紵麻布有差.”

41) 장장식·전경옥, 2001, 앞의 논문, 187-188, 주31.

42) 李樹輝, 1998, 「突厥語數詞toquz文化附加義探析」, 『語言與翻譯』 4, 53쪽;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2018, 『동방견문록』, 사계절, 255쪽, 주63.

43)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2, 『부족지』, 사계절, 217쪽의 주98.

44) 김호동 역주, 2018, 앞의 책, 255쪽.

구 팔십일 개의 공물을 보내, 카안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봐야 마땅하다. 그리고 몽골의 이러한 전통은 샤머니즘 제례와 법전에도 질게 반영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3. 샤머니즘과 형법 중에서의 근거

먼저 샤머니즘 신앙과 제례에서의 예들을 살펴보겠다. 다르하트 샤먼들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81번 차찰을 올린다고 한다.⁴⁵⁾ 복드 항 산의 대제에서는 천신에게 흰색의 헌물을 81번 부려 올린다.⁴⁶⁾ 부랴트에서 양을 바치는 의식을 치를 때도 양을 밖으로 끌고 나가 81보를 걸어간 다음 놓아준다.⁴⁷⁾ 부랴트의 성무 의식인 차나르에서는, 아홉 쌍 나무를 아홉 아홉(yisu yisu)씩 방형으로 배열시켜 세운다고 한다. 祭場에 나무를 심을 때 첫 번째에 아홉 그루를 세우고, 두 번째에 18그루, 그다음 순차적으로 9의 배수로 27, 36, 45, 54, 63, 72그루를 세우는데, 마지막인 아홉 번째 차나르에서는 $9 \times 9 = 81$ 의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⁴⁸⁾

이렇게 제례에서 나타나는 구구 팔십일은 성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크고 많은 수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칭기스칸 일족의 조상 제사인 가릴祭의 경우 9의 9(81)의 나쁜 징조를 물리치기 위해 행해진다고 한다.⁴⁹⁾ 우리가 통상 9, 81을 성수로 인식하는 것과 반대로 이 숫자들이 나쁜 징조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을 9의 부정적 함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온갖’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9의 이러한 상징 의미는 재산형 관련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元史』 형법·盜賊 條에 따르면, 낙타, 말, 소, 당나귀, 노새를 훔쳤을 경우 아홉 배로 배상해야 했다.⁵⁰⁾ 『자사』의 조문에 따르면, “그 재산에서 훔친 말이 발견된

45) 이안나, 2010,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79쪽.

46) 이안나, 2010, 위의 책, 412쪽.

47) 장장식·전경옥, 2001, 앞의 논문, 194-195쪽.

48) 色·杜拉瑪, 2001, 앞의 책, 173쪽.

49) 楊海英, 1997, 「オールドス・モンゴルの祖先祭祀: 末子トロイ・エジン祭祀と八白宮の関連を中心に」,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21(3), 676쪽.

자는 같은 종류의 말 9마리를 얹어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⁵¹⁾ 마르코 폴로의 기행문에서도 관련 규정이 언급된다. “만약 누군가 말이나 다른 물건을 훔쳐 그가 사형에 처해지면 칼로 그를 두동강낸다. 그렇지만 도적질한 사람이 훔친 것보다 9배나 더 많이 배상한다면 처형을 피할 수 있다.”⁵²⁾

9배로 배상하는 관습은 몽골제국 이후의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번원 칙례』 등과 같은 청대 몽골 법전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 법전에서 ‘별’이 왕왕 발견되며, 이는 옛 몽골법을 계승한 것이다.⁵³⁾ ‘별’은 간단히 말해 소, 양 등 9마리의 가축이 한 조로 이뤄진 재산형 단위다.⁵⁴⁾ 이것은 『원사』나 마르코 폴로의 기록과도 어느 정도 합치된다. 눈에 띄는 것은 계급의 고하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9의 9배부터 9의 5배, 9의 3배, 9와 같이 차등을 두어 처벌하는데, 왕공 등 최상위 계층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인 9의 9배수로 재산형에 처한다고 한다.⁵⁵⁾

자삭 이후 순수하게 몽골법에 기원을 둔 1640년 오이라트 법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⁵⁶⁾ 왕공의 화로를 꺼뜨린 경우 별 9의 9에 처하고 평민의 것을 꺼뜨리면 별 9에 처한다는 등,⁵⁷⁾ *yisün yisün caɣaja*(九九制) 혹은 *yisün yisü nayan nigen*(구구팔십일)의 표현이 보인다.⁵⁸⁾

북몽골의 관습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받는 칼카 지름에 따르면,⁵⁹⁾ 계겐의

50) 『元史』 卷一百四, 志第五十二, 刑法三 盜賊 “諸盜駝馬牛驢騾, 一陪九.”

51) V.A. 라자노프스키 저, 서병국 역, 1996, 『몽골의 관습과 법』, 혜안, 115쪽.

52) 김효동 역주, 2018,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198쪽.

53) V.A. 라자노프스키 저, 서병국 역, 1996, 위의 책, 246쪽; 何金山·朝魯門, 2014, 「蒙古族古代游牧特色的罰審刑處罰規定」,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5(2), 96-97쪽; 金山, 2007, 「清代蒙古地區地方立法問題研究——以〈喀爾喀吉如姆〉研究為中心」, 內蒙古大學博士學位論文, 28, 32, 38, 74-75쪽; Ch'en, P.H.C., 1979, *Chinese Legal Tradition under the Mongols: The Code of 1291 as Reconstruct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58-59.

54) V.A. 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몽골의 관습과 법』, 혜안, 71, 414, 416쪽.

55) 金山, 2007, 앞의 논문, 32쪽; 包朝魯門, 2012, 「蒙古族古代獨特刑罰制——罰審刑研究」,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12쪽.

56) V.A. 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앞의 책, 68쪽.

57) V.A. 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앞의 책, 141쪽.

58) 寶音烏力吉·包格 校注, 2000, 『蒙古-衛拉特法典』, 內蒙古人民出版社, 155, 214-215쪽.

사자를 흥기로 찌른 자는 별 9의 9배, 칸의 사자를 찌른 자는 별 9의 4배의 재산 형에 처한다. 승려를 모욕한 죄에 관해서는, 格隆(Gelung)에 대한 모욕은 별 9의 9배의 재산형에 처하고, 세속계의 노윤에 대해서는 별 9의 5배에 처한다고 한다.⁶⁰⁾

『蒙古律例』 제13조에 따르면, 평민의 처와 간통한 경우, 제1, 2등 왕공은 별 9의 9배, 다른 왕공은 별 9의 7배, 타이지는 별 9의 5배의 재산형을 본남편에 지불한다.⁶¹⁾ 『大清會典事例』에서의 내용은 훨씬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구구’가 81임을 보여준다. 코르친, 오르도스 등의 旗들은 매해 설 청나라에 공물을 바치는데, 코르친 등 10旗는 총 “十二九”의 수, 즉 양 108마리, 젓술 108병을 바쳤다. 오르도스 여섯 旗, 올라트 세 旗는 총 “九九”를 바치니, 양 81마리, 젓술 81병이었다. 남은 스물다섯 旗는 총 “三九”를 바치니, 양 27마리, 젓술 27병이었다.⁶²⁾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구구 팔십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첫째, 蒙元 시기 주변국이 카안에게 갖춰 올리는 공물의 수. 둘째, 샤머니즘 신앙과 제례 중 천신이나 태양에 바치는 헌물의 개수 혹은 헌물을 올리는 횟수. 셋째, 몽골 법전에서 재산형으로 부과되는 가축의 수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81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9의 9배 혹은 九九라는, 9를 병렬시킨 형식으로 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81을 굳이 九九라고 표현한 까닭은, 선행연구 결과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려해 봤을 때, 몽골인들이 9의 9배를 최대수량, 최대치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비록 『비사』 역주본들이 也孫 也速_湯에 대해 양분된 해석을 했지만, 九九(팔십일)라고 번역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59) V.A.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앞의 책, 224쪽.

60) V.A.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앞의 책, 150-151쪽.

61) 達力扎布, 2004, 「康熙三十五年〈蒙古律例〉研究」, 『民族史研究』 15(1), 122쪽; V.A.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앞의 책, 173쪽.

62) 『欽定大清會典事例理藩院』, 理藩院 貢獻 內劄薩克貢物. “康熙十三年題准: 每年節進貢, 科爾沁等十旗, 共進十二九, 計羊一百有八隻, 乳酒百有八瓶, 鄂爾多斯六旗, 烏喇特三旗, 共進九九, 計羊八十一隻, 乳酒八十一瓶, 餘二十五旗, 共進三九, 計羊二十七隻, 乳酒二十七瓶, 由院查收, 交與禮部.”

IV. 餘論

『비사』의 저자가 직접적으로 81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九九라는 형식으로 숫자를 쓴 까닭에 관해서, 또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숫자 9는 “다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99 아버지 텡게리”와 같이 천신과 관련 있고 성스러운 수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했듯, 『비사』의 서사 속에서 숫자 9는 칭기스칸 일생의 시작점 및 중요한 순간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한 『비사』 267절의 이 일화는, 칭기스칸이 임종을 앞둔 때에 벌어진 일이다.⁶³⁾ 당시 칭기스칸은 서하 정벌을 가던 도중 들말들을 사냥하다가 낙마해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던 것이다. 일로코 보르칸이 칭기스칸을 알현할 때, 칭기스칸은 “속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보르칸을 문을 닫은 채 밖에서 알현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한 까닭은 칭기스칸의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가 이미 사망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⁶⁴⁾

그렇다면 『비사』의 저자가 이 부분에 也孫 也速惕를 넣은 것은, 칭기스칸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고의로 부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칭기스칸이 일생을 시작하는 나이는 9세인데, 그렇다면 『비사』의 기록 속에서 칭기스칸 일생의 시작과 끝에 대칭적으로 성수 9가 부여된 것이다. 『비사』의 이러한 서술은, 칭기스칸의 생몰년을 모두 돼지해로 맞춰 은밀하게 칭기스칸을 폄하한⁶⁵⁾ 라시드의 『집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也孫 也速惕에 정말로 이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63) 칭기스칸의 죽음 및 사인에 관하여 여러 설이 있다. 『비사』와 《장춘진인 서유기》의 낙마설 외에도 병사, 벼락에 맞아 죽었다거나, 서하의 왕비를 취해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죽었다는 설 등이 있다. 관련해서는 村上正二, 1976, 앞의 책, 271-274쪽의 주석 16을 참고.

64) Onon, 2001, op.cit., p.261.

65) 周清澍, 1962, 「成吉思汗生年考」, 『內蒙古大學學報(社會科學)』 1, 26쪽; 邵循正, 1962, 「成吉思汗生年問題」, 『歷史研究』 2, 135-137쪽.

참고문헌

- 那珂通世 譯注, 1943, 『成吉思汗實錄』, 築摩書房
- 道潤梯步, 1979, 『新譯簡註〈蒙古秘史〉』, 內蒙古人民出版社
-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2, 『부족지』, 사계절
-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5, 『칸의 후예들』, 사계절
-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2018, 『동방견문록』, 사계절
- 小澤重男, 1984, 『元朝秘史全釋(上)』, 風聞書房
- 小澤重男, 1989, 『元朝秘史全釋續放(下)』, 風聞書房
- [明]宋濂, 1976, 『元史』, 中華書局
- 阿爾達扎布, 2005, 『新譯集註〈蒙古秘史〉』, 內蒙古大學出版社
- 烏蘭 校勘, 2012, 『元朝秘史(校勘本)』, 中華書局
- 유원수 역주, 2004, 『몽골비사』, 사계절
- 札奇斯欽, 1979, 『蒙古秘史新譯並註釋』,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 村上正二 譯注, 1976, 『モンゴル秘史(3)チンギス・カン物語』, 平凡社
- 策·達木丁蘇隆 編譯, 謝再善 譯, 1956, 『蒙古秘史』, 中華書局
- [清]會典館編, 趙雲田點校, 2007, 『欽定大清會典事例理藩院』(西藏歷史漢文文獻叢刊), 中國藏學出版社
- Atwood, C.P.,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enguin Classics, 2023
- Onon, Urgunge. 2001.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The Life And Times Of Chinggis Khan*, Richmond, Virginia: Curzon
- Rachewiltz, I. d. 2004.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Leiden&Boston: Brill
- Ш.Чоймаа, etc., 2024,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тай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Ан д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니콜라스 보베 著, 유원수 譯, 1992,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 센덴자빈 돌람 著, 이평래 譯, 2007, 『몽골 신화의 형상』, 태학사
- 유원수, 2009,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 이안나, 2010,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 이안나, 2016, 『몽골 영웅서사시의 통섭적 연구』, 민음사
- V.A.라자노프스키 著, 서병국 譯, 1996, 『몽골의 관습과 법』, 혜안
- 寶音烏力吉 著, 包格 校注, 2000, 『蒙古-衛拉特法典』,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色·杜拉瑪 著, 蘇尤格, 沐麗森 轉寫, 2001, 『蒙古象徵學(上冊)』,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嘎日迪, 2006, 『中古蒙古語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 Ch'en, P.H.C., 1979. *Chinese legal tradition under the Mongols: the Code of 1291 as*

reconstructed, New Jersey In the United King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Guilford, Surrey

- 고정석, 1988, 「Macbeth의 상징 연구: 숫자 3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영어영문학』 34(1)
- 김성규, 2013, 「金朝의 '禮制羈權主義'에 대하여」, 『中國史研究』 86
- 안현재, 2024, 「『몽골비사』 다시 읽기-일곱 콩코탄 기사의 재검토」, 『동양사학연구』 167
- 이선애, 2018, 「후금 시기 의례의 정치-의례를 통해 본 對蒙관계」, 『史叢』 93
- 장장식·전경욱, 2001, 「동몽골 보리야드 족의 샤머니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 연구소 편, 『몽골의 무속과 민속』, 월인
- 장장식·D. Ulziibat, 2011, 「『몽골비사』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성-3과 9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4
- 金山, 2007, 「清代蒙古地區地方立法問題研究——以《喀爾喀吉如姆》研究為中心」, 內蒙古大學博士學位論文
- 達力扎布, 2004, 「康熙三十五年〈蒙古律例〉研究」, 『民族史研究』 15(1)
- 安賢宰, 2024, 「《元朝秘史》의隱喻及其曆史學闡釋」,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溫海清, 2021, 「再論數字7在蒙元時代的呈現及其象徵意義」, 『學術月刊』 53(02)
- 李樹輝, 1998, 「突厥語數詞toquz文化附加義探析」, 『語言與翻譯』 4
- 周清澍, 1962, 「成吉思汗生年考」, 『內蒙古大學學報(社會科學)』 1
- 邵循正, 1962, 「成吉思汗生年問題」, 『歷史研究』 2
- 包朝魯門, 2012, 「蒙古族古代獨刑罰制—罰畜刑研究」,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 何金山·朝魯門, 2014, 「蒙古族古代遊牧特色的罰畜刑處罰規定」,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5(2)
- 楊海英, 1997, 「オールドス・モンゴルの祖先祭祀: 末子トロイ・エジン祭祀と八白宮の關連を中心」,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21(3)
- Moses, Larry., 1986, "Tripllicated Triplets: The Number Nine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sian Folklore Studies* 45(2)
- 栗林均·確精扎布編, 200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叢書第4號),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栗林均編, 2009, 『『元朝秘史』モンゴル語漢字音譯・旁譯漢語對照語彙』,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Lessing, F. D., 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투고일: 2025년 03월 27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4일

■ Abstract ■

Interpretating “也孫 也速惕” (*yisün yisüt*)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 A Numerical and Cultural Analysis

Ahn, Hyun-ja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visits the meaning of “也孫 也速惕” (*yisün yisüt*) in Section 267 of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offering a new interpretation along with supporting evidence. The term refers to the number of tribute items offered by Iluqu Burqan, ruler of Western Xia, to Činggis Qan (Genghis Khan) following the fall of his kingdom. Although most annotated editions translate *yisün yisüt* as “nine each” or “九九” (nine-nine), they rarely explain the reasoning behind this choice. One influential interpretation, proposed by Naka Michiyo (那珂通世), suggests that the term refers to gifts exchanged in sets of nine, or “nine each,” drawing on historical records of Khitan and Mongol practices.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grammar challenges this view: in Mongolic languages, distributive numerals like “nine each” would require the form *yisüged*, not *yisüt*, since the suffix *~rad/ged* must be attached to cardinal or base numbers. This grammatical point, together with cultural evidence, points toward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n Mongol tradition, the number nine carries a meaning of abundance and maximal extension, a symbolism that becomes even stronger when nine is multiplied by itself. Shamanistic rituals, historical records, and even legal codes all show examples of this symbolic use of repeated nines. Building on these examples, this study supports the interpretation of *yisün yisüt* as denoting “9x9,” which would best be understood as representing “81.”

Key words: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yisün yisüt*, number symbolism, Mongol cultural traditions, tribute system